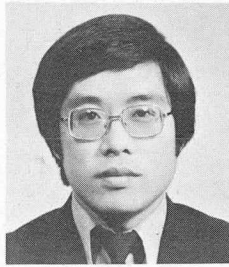


이달의 양돈시황

지육 kg당 2,900 원~3,000 원대에서 보합세 예상



함 병 은
(본회 지도부)

양돈경기동향

돼지값이 '86년 이후 4년만에 최고가격을 형성하였다. 이런 추세는 6월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비육돈 가격은 15만5천원으로, 이것은 1개월전의 13만2천원보다는 2만3천원(17.4%), 1년전의 9만6천원보다는 5만9천원(61.5%)이 상승되었다. 역시 자돈 가격도 최고시세인 4만2천원으로 1개월전의 3만6천원보다 6천원(16.7%), 1년전의 2만7천원보다는 무려 1만5천원(55.6%)이 각각 올랐다.

도매시장의 가격 및 경락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평균 도매가격(지육 kg당)은 2천8백1원으로 1년전의 1천6백73원과 비교하면 1천1백28원(67.4%)이 상승되었다. 반면, 경력두수는 18만2백15두로서 오히려 1년전보다 2만7천8백18두

“

“5~6월의 돼지값은 소폭 하락된 비육돈(90kg 기준) 17만원, 자돈 4만4천원, 그리고 판매가격은 지육 kg당 2,900~3,000원대에서 보합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젓먹이돼지사료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자돈가격이 4만원 이상에서 거래돼 7월 이후에는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

(13.4%)가 감소되었다. 또한 최고가격은 5월 10일에 3천17원, 최저가격은 4월 17일에 2천5백18원을 각각 기록했다.

인천의 대신산업 도매시장의 경우 총경락마리수가 2만4천2백54두로 1년전보다 역시 6천1백71두(20.3%)가 늘어난 반면, 평균 도매가격은 2천8백31원으로 1년전의 1천7백32원보다 1천99두(63.5%)가 상승되었다. 이중 최고가격은 3천2백21원(5월 14일), 최저가격은 2천5백55원을 나타냈다.

대구지역은 총경락두수가 2만5천1백75두로서 1년전보다 1천2백90두(4.9%)가 감소되었고, 지육 kg당 평균가격은 2천6백97원으로 1년전의 1천6백49원과 비교해서 1천48원(63.6%)이 상승되었다. 최고가격은 5월 7일에 2천8백60원을 보였고, 4월 18일에는 2천5백14원으로 최저가격을 나타냈다.

부산지역은 최고가격이 5월 17일에 3천1백53

〈표〉 양돈사료 생산량('90년 4월) (단위: 톤)

구분	'90. 4월 (A)	'90. 3월 (B)	'89. 4월 (C)	등락(%)	
				A/B	A/C
젓먹이용	67,744	61,119	65,297	10.8	3.8
육성비육용	125,630	152,731	153,519	-17.7	-18.2
모돈용	74,405	79,109	95,350	-6.0	-22.0
특수사료	589	632	2,347	-6.8	-74.9
계	268,368	293,591	316,513	-8.6	-15.2

원, 최저가격은 4월 26일에 2천6백10원으로 평균가격이 2천7백7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의 1천6백90원과 비교하면 1천80원(63.9%)이 상승되었으나, 총경락두수는 4만8천5백58두로 1년전동기보다 9천9백27두(17.0%)가 감소되었다.

광주지역의 총경락두수는 7천4백85두, 평균도매가격은 2천6백59원으로 1년전 같은기간과 비교해서 경락두수는 3천2백66두(30.4%)가 감소되었으나, 도매가격은 1천1백81원(79.9%)이 상승되었다.

이와같이 전국적으로 도매가격(지육 kg당)은 1년전보다 65% 이상 올라, 5월초순에는 3천원 대가 형성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경락두수는 오히려 1년전보다 평균 65% 정도 감소되었다. 이것은 현재 산지에서 출하될 물량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작년 돼지값의 강한 하락에 따라 많은 양돈농가들이 폐업, 전업 또는 감축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쇠고기와 닭고기 등 대체재 가격상승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고, 특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일반소비자의 육류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90년 4월의 주요 12개 업체에서의 수출 물량은 4백17톤(2백12만6천불)로 1개월전보다는 42.0%, 1년전보다는 36.7%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국내돈가의 상승과 엔강세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90년 3월말 현재 총수입된 돼지고기 통조림 물량은 9백6톤(2백2만4천불)으로 1년전보다 2백43톤(58만8천불)이 증가되었다. 또 '90년부터 개방된 소세지도 67톤(18만5천불)이 수입돼 양축농가와 육가공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경기전망

금년 1월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값은 5월초순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6월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 5~6월에 출하될 '90년 4월의 양돈사료 생산량중 육성돈 및 비육전기사료를 보면, 1년전보다 육성돈 사료는 15.9%, 비육전기사료는 15.0%가 각각 감소되는 등 현재 산지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 6월은 계절수요가 5월에 비해 약간 감소되나, 쇠고기 및 닭고기 등의 대체가격이 상승되고 있어 6월에도 돼지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산배설물 처리비용의 과중과 농촌 일손의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성이 미약한 소규모 농장들은 신규입식이나 증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출하물량은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5~6월의 돼지값은 소폭 하락된 비육돈(90kg 기준) 17만원, 자돈 4만5천원, 그리고 판매가격은 지육 kg당 2,900~3,000원대에서 보합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젓먹이돼지사료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자돈가격이 4만원 이상에서 거래돼 7월 이후에는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따라서 사육농가들은 돼지가격의 불균형을 잘 파악해 자기농장에 맞는 경영규모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